

 보 도 자 료 2013.5.23.(목)	행사문의	안 미 영 교수 (02-910-4433)
	언론담당	황 애 리 (02-3156-7296)
	보도일자	2013.5.23.(목) 부터
	※ 총 8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변화하는 가족, 돌봄, 그리고 복지국가 재편: 사회투자접근, 적절한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민대학교 복지국가와 사회적 돌봄 SSK 사업단,
한국의 돌봄 정책 발전 방향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움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국민대학교 복지국가와 사회적 돌봄 SSK 사업단과 오는 5월 24일(금)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 심포지움은 국민대학교 복지국가와 사회적 돌봄 SSK 사업단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에서 주관하며, 여성가족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에서 후원한다.
- 새 정부 출범 첫 해를 맞아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지난 10여년간 서구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투자접근은 한국의 복지국가와 돌봄 정책 발전에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 이번 행사는 복지 선진국들의 돌봄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돌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최금숙 원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 한국의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고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 이번 국제 심포지움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 세션 1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서는 이혜경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제인 켄슨(Jane Jenson) 몬트리올대학교 교수의 “사회투자와 동반성장: 사회정책적 개입의 교차 관점들에 대한 고찰”, 이토 팡(Ito Peng) 토론토대학교 교수의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사회투자정책: 사회적 돌봄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주제 발표와 서울대학교 권혁주, 권순만, 장경섭 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 세션 2 “돌봄과 사회투자”에서는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나탈리 모렐(Nathalie Morel) 파리정치대학 교수의 “유럽의 돌봄 정책 발전과 사회투자”, 안미영 국민대학교 교수의 “경로 전환인가? 한국과 일본의 아동 돌봄 정책 발전과 사회투자”, 양윤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시만-근로자’를 위한 사회투자인가? 한국의 ‘시만-돌봄자’ 여성의 비판적 관점에서”,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침체된 여성 고용율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인가?: 한국 여성 노동시장과 사회투자정책에 대한 고찰” 주제 발표와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최영준 고려대학교 교수, 최인희,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 세션 3에서는 목진휴 국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이봉주 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전략연구소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 센터장과 제인 켄슨 교수, 나탈리 모렐 교수, 이토 팡 교수가 참여하는 전체 토론이 이루어진다.

붙임 1. 행사 개요

붙임 2. 발표 주요내용

붙임 1 행사 개요

- 행사명 : [국제심포지움] 변화하는 가족, 돌봄, 그리고 복지국가 재편:
사회투자접근, 적절한가?
- 일시·장소 : 2013년 5월 24일(금) 09:20~17:5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대학교 복지국가와 사회적 돌봄 SKK 사업단
- 주관 : 국민대학교 복지국가와 사회적 돌봄 SKK 사업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
- 후원 : 여성가족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20-09:40	등 록	
09:40-10:00	개 회	환영사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축 사 : 권용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10:00-12:00	<p>세션 1 :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 이해경 (연세대학교)</p> <p>Social Investment and Inclusive Growth, Intersecting Perspectives on Social Policy Interventions Jane Jenson (몬트리올대학교)</p> <p>The “New” Social Investment Policies in Japan and South Korea : Social Inclusion through Social Care Expansion? Ito Peng (토론토대학교)</p> <p>토론 권혁주 (서울대학교), 권순만 (서울대학교), 장경섭 (서울대학교)</p>	
12:00-13:20	점 심	
13:20-15:40	<p>세션 2 : 돌봄과 사회투자</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p> <p>Care Policy Reforms and Social Investment in Europe Nathalie Morel (파리정치대학)</p> <p>Path Shifting?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Japan and Korea 안미영 (국민대학교)</p> <p>Social Investment for ‘Citizen-workers’ ? Raising Questions from South Korean ‘Citizen-carers’ Perspectives 양윤정 (한국외국어대학교)</p> <p>New Solution to Stagnant Female Employment Rate? : Korean Female Labour Market and Social Investment Policies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백승호 (가톨릭대학교)</p>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토론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최영준 (고려대학교)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40-16:00	휴 식
16:00-17:50	세션 3 : 전체 토론 <div style="text-align: right;">사회 : 목진휴 (국민대학교)</div> 김숙자 (여성가족부) 이봉주 (서울대학교) 이상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Jane Jenson (몬트리올대학교) Natalie Morel (파리정치대학) Ito Peng (토론토대학교)
17:50-	폐 회

붙임 2 발표 주요내용

사회투자과 동반성장: 사회정책 개입의 교차 관점들에 대한 고찰
(Social Investment and Inclusive Growth. Intersecting perspectives on social policy intervention)

Jane Jenson (몬트리올 대학)

본 논문은 사회투자관점과 동반성장전략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관련성을 논의하면서 두 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논리와 주요 전략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다양한 정책영역간의, 국가간 사회투자적 관점으로서의 수렴 현상을 목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투자접근이 사회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중심적 접근인 사회투자접근은 남녀평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계층을 상대적으로 덜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동반성장전략으로 사회투자접근 방법이 가지는 유용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사회투자정책: 사회적 돌봄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The “New” Social Investment Policies in Japan and South Korea: Social Inclusion through Social Care Expansion?)

Ito Peng (토론토 대학)

사회투자는 한국과 일본 복지 패러다임의 특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본 논문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사회투자적 접근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과 일본의 사회투자는 첫째, 사회복지와 사회적 돌봄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 둘째,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도 주요한 정책대상자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사회투자관점과 상이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상이함을 내적 및 외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적 요인으로서는 고령화, 저출산, 탈가족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따른 사회 및 경제 불평등과 이에 대한 정치적 반응이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을 지적하고 있다. 외적 요인으로 경제 및 지식 세계화를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 돌봄 정책 발전과 사회투자

(Care Policy Reforms and Social Investment in Europe)

Nathalie Morel (파리정치대학)

지난 20여 년간 유럽은 돌봄 정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 왔다. 본 논문은 그 발전의 양상이 사회투자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돌봄 정책이 사회투자 전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돌봄 정책의 양상은 애매모호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이 정책발전에 주요 원인이자 목적이지만, 사회투자의 핵심적 내용인 돌봄 서비스와 남녀 평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숙련, 여성노동의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해 저숙련, 저임금의 돌봄과 가사서비스 시장을 발전시켜 온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경로 전환인가? 한국과 일본의 아동 돌봄 정책 발전과 사회투자

(Path Shifting?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Japan and Korea)

안미영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본 논문은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접근으로 스웨덴과 영국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과 스웨덴이 그 아동 돌봄 체제의 사회투자성격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영국은 신자유주의적 사회투자,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적 사회투자국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일본과 함께 낮은 사회투자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유급노동에 있어서 높은 양성평등이 한국과 일본과는 다르다. 결론적으로, 지난10여년간 영국이 돌봄 체제에 있어 강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은 온건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 독일과 비슷한 정도의 온건한 체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가장 약한 체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회투자접근은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유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여년간 아동 돌봄 정책적 발전은 여성의 노동 시장 증가를 통한 참여라는 면에서는 남녀 평등을 증진시켰다고는 하겠다. 그러나, 여성 유급노동의 낮은 질과 근로여건은 남자, 상용근로자들이 향유하는 복지와 비정규직, 저임금 주로 여성노동자들이 향유하는 복지로의 이분적 복지체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또한, 여성 유급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저임금, 돌봄 및 가사서비스 노동자로 구성되는 또 다른 사회 및 경제 불평등구조를 잉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돌봄의 시장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다양성은 높은 수준의 돌봄의 질의 양상은 가능하겠으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비이용자 간에, 그리고 서비스이용 아동들 간에, 돌봄의 질의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투자적 돌봄 정책의 발전방향의 모색은 첫째, 여성과 남성의 유급과 무급노동에서의 평등을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이뤘나갈 것인가? 둘째, 돌봄 서비스 질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어느 정도,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민-근로자’를 위한 사회투자인가? 한국의 ‘시민-돌봄자’ 여성의 비판적 관점에서
(Social Investment for citizen-workers? Raising questions from South Korea
Citizen-carers’ perspectives)**

양윤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본 논문은 ‘시민-근로자’, 특히 미래의 ‘시민-근로자’ 양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회투자적 복지국가 방향을 ‘시민-돌봄자’, 주로 여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한다. 열 다섯명의 중장년 여성과의 심층 인터뷰에 기반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은퇴 후 생활 및 손자녀 양육에 관한 입장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손자녀 양육을 기꺼이 떠맡는 기쁨보다는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은퇴 후 자신만의 새로운 생활을 개척하고 즐길 때 주관적인 은퇴생활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어머니’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기중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성은 모든 종류의 ‘일’에서 은퇴하고 자유로울 수 있으며, 손자녀 양육 역시 가족돌봄노동의 일환, 즉 일종의 가족을 위한 ‘책무’로서 노후에 버거운 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즉, 공공육아시설 또는 서비스의 확충을 동반하지 않는 사회투자적 복지국가 접근은 여성의 돌봄노동, 특히 손자녀 양육을 할머니에게 떠맡게 됨으로써 여성의 노후의 안녕까지 담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지원 확충은 그들의 어머니인 노년여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서는 여성의 일방적인 노동시장참여 증진 노력보다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시간지원책이 절실하다.

침체된 여성 고용율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인가?: 한국 여성 노동시장과 사회투자 정책에 대한 고찰

(New Solution to Stagnant Female Employment rate?: Korean Female labour market and social investment policies)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최근 여성에 대한 사회투자정책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고용율 및 노동시장 참여율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련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본 연구는 여성고용 정체성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이 구직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자녀 양육 보다는, 안정적인 고용이나 적정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을 위한 사회투자정책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양질의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지원 중심의 사회투자정책 보다는 기업 보육인프라 확충, 탄력근무제와 같은 근로시간정책 및 출산/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적 제도의 시행률을 기업들이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하는 정책들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저임금 및 비정규직의 여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